



우리는 자랑스러운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 1기

지난 16~17일 1박 2일에 걸쳐 강원도 둔내자연휴양림에서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수락초등학교와 강원도 상장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 80여명이 푸른마음을 가지고 숲에서 배우고 숲에서 봉사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12시부터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 1기 입소식이 있었습니다. 최준석(한그루녹색회 운영위원장, 전 동부지방산림청장)님의 인사말과 축사를 듣고, 상장초등학교와 수락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들의 선서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 우리는 숲에서 배우고 숲에서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푸른숲선도원으로서, 푸른숲 선도원 산림학교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생활속에서 산림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숲 지킴이가 되기로 선서합니다 ” -선서문

맛있는 점심을 먹고나서 다시 강당에 모여 산림학교의 주요테마인 탄소화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푸른숲선도원 각자 20톤(1탄소톤 10장, 5탄소톤 2장)을 받았습니다. 숲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는 탄소화폐를 얻고,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기는 행위를 했을 때는 탄소화폐를 내는 것입니다. 푸른숲선도원들은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숲과 내가 건강해지는 데 앞장서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서 청태산에 직접 나가 숲 체험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반 담임선생님이면서 전문 숲해설가이신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에 푸른숲선도원들이 집중하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영림단에서 오신 선생님의 안전교육과 설명을 듣고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을 보고, 직접 가지치기와 수야베기를 해보았습니다. 자루가 긴 톱을 이용해서 옆으로 뺀 가지를 잘라내고 가지치기 한 가지들과 낙엽 등을 이용해서 비오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녁을 먹고나서는 숲 가꾸기를 하고 남은 나무판에 사포를 문지르고 나서 숲에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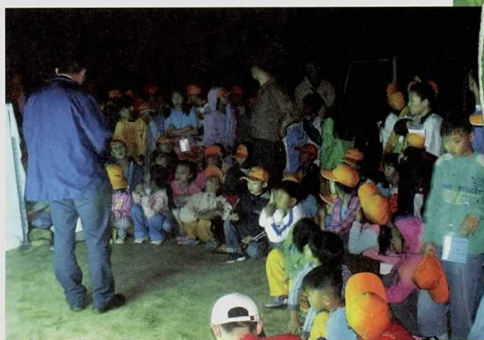


첫날 마지막 수업시간으로 캄캄한 길을 등불로 밝히면서 등화채집을 하러 떠났습니다. 등 주변으로 흰 천을 설치해 날아온 곤충을 관찰하고 채집하는 활동으로, 평소에 징그럽게만 보이던 곤충들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수업시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들과 친구가 되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며, 전날 수업에 배운 내용을 '탄소의 숲 골든벨' 퀴즈로 풀어보기도 하였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자연교과 하나가 되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숲의 소중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또 갈래요!

♥ 처음 간다고 했을 때는 너무 설레었다. 가서 보니깐 시설이 좋았다. 입소식을 할 때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 다음엔 교감선생님하고 우리 1조 선생님이랑 숲에 갔다. 산림청에서 오신 선생님이 가지치기와 숲아베기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셨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또 직접 체험도 해 보았다.

그리고 비오톱 만들기도 해보았다. 가지치기를 한 나뭇가지로 비오톱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조는 나뭇가지만 모았다. 흑흑

그 다음은 저녁을 먹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왔다. 1시간 동안 휴식을 했다. 너무 좋았다. 다음 날에는 7시에 일어나서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침을 먹었다. 숲 끝엔벨 퀴즈게임을 하고 점심을 먹었다. 나는 더 있고 싶었지만 가야 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꼭 가야지.

-수락초등학교 양혜민

♥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를 마치고

♥ 나는 1박 2일 동안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숲가꾸기를 했을 때 숲아베기를 해보았다. 처음에는 정말 쉬워 보였다.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 숲을 가꾸는 선생님께서 숲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나무가 크는 데는 물, 햇빛,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햇빛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나무들을 보니까 “내가 먼저 클 거야!”라며 싸우는 것만 같았다. 숲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점점 더 재미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우리에게는 나무가 있어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나무는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지만, 사람은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종종 있다. 내가 숲의 고마움을 갚기 위해 할 일을 생각해 보니 자연보호가 우선인 것 같다. 깨끗한 환경과 함께, 우리의 건강도, 한층 더 보장될 숲 가꾸기에 앞으로는 앞장서 나갈 것이다.

-수락초등학교 이지은

점점 더
재미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 숲에 들어가서 숲가꾸기를 하였는데 나는 그 중 톱으로 나무의 가지를 잘라 내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또 하나의 활동은 비오톱 만들기이다. 비오톱은 새나 곤충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 공작 활동을 하였다. 사포로 둥그런 나무판을 굽어 낸 다음 도깨비그림을 그렸다. 이날 제일 재미있었던 활동은 등화채집이다. 비닐로 곤충을 잡아서 내려오는 길에 풀어주었는데 선생님이 잘했다고 탄소화폐를 주셨다. 늦게까지 체험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한 활동은 새소리 듣기였다. 숲에 나가서 새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기론 여섯가지 새소리가 들렸다. 아침식사 후 탄소의 숲 골든벨을 하였다. 나는 골든벨에서 일등을 하였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책과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그 후 퇴소식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귀가길에 올랐다.

이번 체험을 한 후 숲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소중한 우리 숲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동물과 식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수락초등학교 황정현



♥ 푸른숲선도원에서 산림학교를 다녀왔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우리 수락초등학교 김상우 교감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 숲가꾸기, 숲모니터링은 산에 올라가서 각 조의 담임 선생님이 숲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숲을 사랑하고 아끼고 환경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보존할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다. 행사를 다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에 숙소에 가서 휴식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였다. 휴식을 한 후에는 강당에 가서 공작활동을 했다. 나무판을 가지고 그림을 새기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등화채집을 하였는데 여러가지 곤충을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다. 산림학교의 첫날의 행사는 다 끝나고 친구들과 잠을 잤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맑은 새소리도 듣고 맑은 공기도 마셨다. 마지막으로 탄소숲 골든벨 퀴즈를 하였다. 열심히 하였지만 아쉽게 나는 1등을 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너무 즐거웠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처음 가본 산림학교라서 너무도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었다. 다음에 또 꼭 가보고 싶다.

- 수락초등학교 김민제



2006년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 행사 일정

6월	7월	9월		10월
16~17일(금,토) (1박 2일)	21~23일(금~일) (2박 3일)	8~10일(금~일) (2박 3일)	14~15일(토,일) (1박 2일)	22~24일(금~일) (2박 3일)

*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 참가를 원하시는 학교에서는 푸른숲선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양식을 통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후 사무국으로 확인전화 주세요.

한그루녹색회

이메일 greencause@hanmail.net

전화 (02) 968-0818, 968-0868, 961-2991

팩스 (02) 961-2992